

《패널 디스커션》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지역복지와 다문화
地域福祉と多文化

김 영자
金 永子

일본 시코쿠학원대학 교수
四国学院大学 教授

한다는 생각이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적인 일만을 근거로 권리의 박탈이 합리화 되어버린 경향이 강한것 같다.

또 당연한듯이 일본인(여기에서는 일본의 지배적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사람들을 말한다)에게는 행하여지는 언어와 문화의 존중이 재일코리안을 포함한 민족적·문화적 소수에 대해서는 되어있지않는 현상이다. 재일코리안 자신에의한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한 것들이 각지에 전파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을 소개하고 싶다.

2.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재류외국인 통계』를 가지고 「한국, 조선」국적자의 고령화율을 계산하면 1984 년말에 9.9%이었던것이 2003 년말에는 13.7%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거주외국인의 장기화에 관해서 확실하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여기의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대다수가 1 세로 코리아 민족의 문화와 풍습을 가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것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당연히 문화적으로 일본인과는 다른 내용의 서비스가 요구된다.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대부분은 모국어가 한국,조선어이다. 대다수는 수십년에 걸쳐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생활에 곤란하지 않을만큼의 일본어를 말할수 있지만 일본어를 읽고 쓸수없는 사람은 적지않다. 읽고 쓰는것은 배우지않으면 하지못하기 때문이다. 「위험」이라는 글을 읽지못하고 위험한 장소에 가버렸다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도 적지 않을것이다. 또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인지증이 되면 나중에 습득하게된 일본어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일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 조선어를 사용하기때문에 한국,조선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케이스워커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부딪치게되고 혹은 고령자가 자기자신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폭력적인 행위를 해버린다는 말을 들었다. 평등과 약세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본래 서비스 제공자와 행정의 통역의 보증을 해야하는데 복지서비스의 창구등에서는 오사카시와 야오시등 일부의 자치체에서는 통역자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담자와 이용자측이 통역을 준비하는 구조로 되어 버렸다.

또 일본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본인을 위한 서비스라고 말할수 있다. 재일코리안의 역사, 문화에 유래하는 상황을 무시해와서 재일코리안,

특히 ‘조선’에서의 생활경험을 가진 고령자는 일본의 복지에서는 내버려져 왔다.

예를들면 노인복지시설의 행사등을 생각해보면 식사는 「일본」식, 오락은 꽃꽂이, 일본민요, 행사는 히나마츠리(여자아이의날), 리허빌리는 종이접기를 한 경우에 무의식중에 「이용자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메뉴가 제공되고 있다. 이것으로는 모두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시설에 입소하여도 즐겁지 않은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중에 일본인 입소자의 코리안에의 차별적인 언동이 있다면 더욱이 거심지의 악조건이 된다.

이같은 상황중에 재일코리안의 복지서비스 이용율은 일본인에 비해 상당히 적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민족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서 1989년 11월에 준공한 특별양호노인홈「고향의 집」을 말할수 있다. 평생 한국에서 목포공생원을 운영하여「고아」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고향의집 이사장 윤 기씨,

그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웠을때 ‘우메보시가 다베따이’(메실짱아찌가 먹고싶다)라고 말을 남겼듯이 일본에 사는 재일조선인의 노인들도 매일의 생활중에 김치를 먹을수 있는 노인홈을 원하고 있지않는가 라고하여 「고향의집」을 만들었다고 한다.

「고향의집」의 개설이후, 1997년의 개호보험공포까지의 약 10년 가깝게, 1세를 위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 10년간을 지문거부운동과 지방공무원의 국적조약철폐운동, 지방참정권운동과 상징되는 민족차별이라는 투쟁시민운동, 그리고 야간중학교등의 식자운동을 통하여 1세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의 기반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말할수있다.

더우기 개호보험법의 제정이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해 복지서비스 만들기를 가속시켰다고 말할수 있다. 개호보험법 시행전에 지금까지의 일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재일코리안은 보험료를 지불하여도 서비스를 받을수없는 상태가 된다고 재일코리안 2세들이 위기감을 심하게 느꼈다는것과 여기에 개호보험제도하에서는 NPO의 인정을 받으면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할수 있다고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것이 이전보다도 쉽게되었다는 일도 있어 재일코리안 2세가 중심이되어 민족성과 역사성을 소중히한 자기부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려는 시도가 각지에 퍼져 나갔다.

많은 시도는 공적인 회관과 민족단체의 지부등을 빌려서 한달에 한번 혹은 주에 한번, 민족요리와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예를들면 1998년 8월에 오사카부야오시에서 개설된 「야오 썬보람」은 당초 집회소를 빌려서 썬데이서비스라는 침·맛사지의 무료서비스, 민족요리의 점심서비스, 레크레이션등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활동에서 출발하였지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고 민가를 빌려서 보통(주 5회) 고령자가 쉴수있는 공간과 주로 2세 여성에 대한 민족적인 점심의 서비스등을 제공하게 되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민족차별을 없애는 활동안에서 가와사키후레아이관이 오픈되어 식자학급이 시작한것이 계기가 되어 제일고령자 교류클럽 「도라지회」와 재택, 방문개호사업소 「헛트라인」이 만들어졌다. 이와같이 오사카의 「NPO 법인 제일코리안 고령자지원센터 썬보람」도 또 민족차별철폐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또 동오사카시의 데이서비스 「사랑방」은 야간중학교를 졸업한 할머니들의 배움장 「우리서당」의 운영위원회가 고령이 된 할머니들의 야간활동(야간중학, 우리서당)에서 낮의 활동으로 바꾸기위해 세웠으므로 야간중학의 할머니들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NPO 법인 경도 코리안생활센터 에루화」는 이사장 정희순씨가 고령이 된 동포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활동중에 1세의 문제로 부딪힌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어가 가능한 제일코리안 노인헬퍼를 양성하는 인재육성에서 시작되었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아이지현 나고야에서 「데이서비스센터 휴식」(2003년 6월 「NPO 법인 코리아넷트 아이지」 인정)이 개업되는등, 각지에 전파되었다. 각각 특색이 있지만 공통하고 있는것은 음식, 그리고 코리안이 모여 이야기하는 장소와 민족적인 놀이와 오락의 제공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것과 다른 흐름으로 제일코리안의 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 개호노인보건시설을 설치하는 움직임의 일면이다. 오사카이쿠노구의 개호노인보건시설 「하모니공화」도 원래는 제일조선인의 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화병원(의료법인 도유가이)가 개설한 것이다.

또 각지에서의 이러한 조직을 네트워크함으로써 보다좋은 생활지원을 하자고 2004년에는 「재일코리안 고령자생활지원 네트워크·하나」(하나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3. 다민족 · 이문화공생복지에의 가능성

차별받고 억압받은 상황속에서 피차별자, 피억압자는 내면에서 커다란 상처를 받고 긍지와 프라이드를 빼앗은 경우가 가끔 있었다.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 세분들을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중에 자기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빼앗겨온 긍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약간의 사람이 1 세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과정이 보이기도 한다. 또 문자를 쓰고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내면이 풍부해져 간다는 과정을 가끔 보기도 한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전환해가는 프로세스도 있고 민족적·문화적의 박탈당한 권리와 긍지를 찾아주는 복권의 과정이다.

이와같이 재일코리안 고령자를 위해서 복지서비스의 실천은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많은 서비스의 전파와 충실이 요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재일코리안의 다수거주하는곳이 아니면 실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모두의 재일코리안 고령자가 이용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재일코리안의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시설 서비스를 살림으로서 「일본인」의 서비스를 「모든사람」의 서비스(국민복지에서 다민족·다문화공생복지)로 전환 할수있지 않을까. 기존의 국민복지적 복지서비스를 다민족·다문화 공생복지에 전환해 가는일이 요망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많은 정책결정의 과정과 행정직원, 민생위원에의 재일코리안의 등용과 일본인도 포함한 인재육성이 시급하지않으면 안된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200 만명(2004년말 현재) 일본인의 법률혼중에 20.5 쌍에 한쌍이 외국인과의 카풀(2003년) 1년에 일본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중에 34.5 명에 한사람은 양친의 한쪽이 외국인(2002년). 앞으로 점점 많은사람들이 일본에서 함께 살게되는것이 예상된다. 재일코리안의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일본의 사회복지·지역복지의 방향성을 생각하는데 참고가 될것이다.

프로필

김 영자(金 永子)

일본 시코쿠학원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력 및 경력

오사카시립대학 생활과학부 사회복지학과 졸업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생활과학연구과 박사과정전기 수료
시코쿠학원대학 문학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사회복지(편역), 신간사, 2002
재일외국인에 관한 생활보호의 몇가지 문제점, 부락해방 575호, 2007.1
동포고령자와 개호보험, 동포의 인권과 생활 Vol.9, 2000.1
한센병(나병)요양소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의 고전, 상조회(다마전생원)의 활동
을 중심으로,
시코쿠학원대학논집 제 111?112 호, 2004.12

지역복지와 다문화

재일코리안 고령자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례로 해서



김 영자
시코쿠학원대학 교수

1. 국민복지의 계속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당사국의 지배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를 국민복지라고 정의하면 일본의 현상은 국민복지적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조선' 식민지 지배기, 「내선일체」의 이름하에 황민화정책이 추진된 것은 아시는 바이지만 사회사업도 날개를 잃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패전 후 일본 국내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의 정산도 불충분한 채 단일민족의식과 동화주의가 온존되어 더우기 국적에 의한 차별도 더했다. 드디어 난민조약에의 가입에 의해 1982년에 사회보장관계법의 일본국적을 가진 것에 한계라는 「국적조항」은 기본적으로는 없어지고 의연적으로 재일코리안고령자와 장애인중에는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제도적 연금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관한 재판도 하고 있는 중이다. 또 생활보호법의 법문에는 「국적조항」이 없는데도 일본정부는 생활보호의 대상은 일본국민이고 외국인에 관해서는 권리가 아니고 일본인으로 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는 해석을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과 난민조약의 내외인 평등이라는 이념에서 동떨어진 운영이 된 채로 되어 있다. 본래 기본적인 인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될 것이고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한되어야

地域福祉と多文化

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
社会福祉サービスを例にして



金 永子
四国学院大学 教授

1. 国民福祉の継続

当事国の国籍を持つ者や当事国の支配的な文化を背景に持つ人々を対象とした社会福祉を、国民福祉と定義するとすれば、日本の現状は国民福祉的状况を抜け出せていないといえるだろう。

日本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期、「内鮮一体」の名の下に皇民化政策が押し進められたことは周知の通りだが、社会事業もその一翼を担った。日本の敗戦後、日本国内においては植民地支配の清算も不十分なまま、単一民族意識や同化主義が温存され、さらに国籍による差別も加わった。ようやく難民条約への加入により、1982年に社会保障関係法の日本国籍を持つものに限るという「国籍条項」は基本的になくなったものの、依然として在日コリアン高齢者や障害人の中には、年金を受給できない制度的無年金者が多数存在しているし、これに関する裁判も係争中である。また、生活保護法の法文には「国籍条項」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生活保護の対象は日本国民であり、外国人については権利ではなく日本人に準じて保護をしているという解釈を現在も続けている。国際人権規約や難民条約の内外人平等という理念からかけ離れた運用がなされたままになっている。本来、基本的人権は国籍にかかわらず全ての人びとが平等に保障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もし合理的な理由があったとしても慎重に制限される

べきものだと考えるが、日本では外国籍であることだけを根拠に権利の剥奪が合理化されてしまう傾向が強いようだ。

また、当然のごとく日本人（ここでは、日本の支配的文化を背景に持つ人々を指すことにする）には行われている言語や文化の尊重が、在日コリアンを含む民族的・文化的少数者に対してはなされていない現状がある。そのような中で、在日コリアン自身によ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ための取り組みが各地に広がっている。ここでは、それを紹介したい。

2. 在日コリアン高齢者を対象とした社会福祉サービス

『在留外国人統計』をもとに「韓国、朝鮮」籍者の高齢化率を計算すると、1984年末に9.9%であったのが2003年末には13.7%に増加しており、日本での居住の長期化につれて確実に高齢化が進んでいることがわかる。これら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多くが一世で、コリア民族の文化や風習を色濃く残した生活をしていることを考慮すると、社会福祉サービスにおいても、当然、文化的に日本人とは異なる内容のサービスが求められる。

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多くは母語が韓国、朝鮮語である。多くの人は、数十年にわたり日本で生活しているので、生活に困らない程度の日本語が話せるが、日本語の読み書きのできない人が少なくない。読み書きは学ばないと修得出来ないからだ。「危険」という字が読めなくて、危険な場所に行ってしまったという経験をした人はおそらく少なくないだろう。また、在日コリアン高齢者が認知症になると、後から習得した日本語から忘れていく傾向にある。日本語を使わないようになり、韓国、朝鮮語を使用するようになるため、韓国、朝鮮語を理解できないケアワーカー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問題にぶつかったり、あるいは高齢者の方が自分自身の意思が相手に伝わらないということで暴力的な行為をしてしまうという話を聞く。

平等やアクセスという観点から考えると、本来、サービス提供者や行政が通訳の保証をすべきなのに、福祉サービスの窓口などでは、大阪市や八尾市など一部の自治体では通訳者を準備しているものの、ほとんどの場合、相談者や利用者の側が通訳者を準備する構図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

また、日本の社会福祉サービスは、日本人のためのサービスしか提供していないといえるだろう。在日コリアンの歴史、文化に由来する状況を見無視してきたために、在日コリアン、特に「朝鮮」での生活経験を持つ高齢者

は、日本の福祉から置き去りにされてきた。

例えば、老人福祉施設の行事等を考えてみると、食事は「日本」食、娯楽は生け花、日本民謡、行事はひなまつり、リハビリは折り紙といった具合に、無意識のうちに「利用者は日本人」というのが大前提になったメニューが提供されている。これでは、全く異なる文化や風習をもつ在日コリアン高齢者が施設に入所しても楽しくないのは当然だろう。その上、日本人入所者のコリアンへの差別的な言動があると、さらに居心地の悪いものになる。

このような状況ゆえに在日コリアンの福祉サービス利用率は、日本人に比べ非常に低かったという調査結果が出ている。

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民族的な福祉サービスの提供を目指した最初の社会福祉施設として1989年11月に竣工した特別養護老人ホーム「故郷の家」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永年韓国で木浦共生園を運営され「孤児」のために献身的に活動されてきました故郷の家の理事長尹基氏のお母さんは日本人なのだが、理事長のお母さんが病床にあったとき、「梅干が食べたい」とつぶやいたように、日本に住む在日コリアンのお年寄りも毎日の生活の中でキムチの食べられる老人ホームを求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故郷の家」をスタートさせたという。

「故郷の家」の開設以降、1997年の介護保険法公布までの約10年近く、一世のための福祉活動として際立った動きはなかった。この10年間で、指紋押捺拒否運動や地方公務員の国籍条項撤廃運動、地方参政権運動に象徴されるような民族差別と闘う市民運動、そして夜間中学校などの識字運動を通じて、一世のための社会福祉活動をになう基盤が作られてきた時期と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さらに、介護保険法の制定が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ための福祉サービス作りを加速させたといえよう。介護保険法施行を前に、これまでのような日本人のための福祉サービスでは、在日コリアンは保険料を支払ってもサービスを受けられない事態になりかねないと在日コリアン二世たちが危機感を募らせていったことと、それに加え、介護保険制度下ではNPOの認証を受ければ社会福祉事業に参入できるというように事業を始めるのが以前よりも容易になったこともあり、在日コリアン二世が中心になり、民族性や歴史性を大切にしたい自前の福祉サービスを提供しようという試みが各地

で広がった。

多くの試みは公的な会館や民族団体の支部などを借りて、月1回か週1回、民族料理やレクリエーションを提供する活動から始められた。例えば、1998年8月に大阪府八尾市で開設された「八尾サンボラム」は、当初、集会所を借りてサンデーサービスという、鍼・灸・マッサージの無料サービス、民族料理の昼食サービス、レクリエーション等で一日を過ごしてもらうという活動から出発したが、常設のいこいの場を提供したいと民家を借りて常時（週5回）高齢者が憩える空間と、主に二世の女性による民族的な昼食のサービスなどを提供するようになった。

川崎市では、民族差別をなくす活動の中から、川崎ふれあい館がオープンし、識字学級が始められたことがきっかけになり在日高齢者交流クラブ「トラヂの会」や居宅、訪問介護事業所「ほっとライン」が作られた。同様に、大阪の「NPO 法人在日コリアン高齢者支援センター サンボラム」もまた長年の民族差別撤廃運動の中から始まった。また、東大阪市のデイサービス「さらんばん」は、夜間中学校を卒業したハルモニたちの学びの場「ウリソダン」の運営委員会が高齢になられたハルモニたちの夜の活動（夜間中学、ウリソダン）から昼の活動に繋げようと立ち上げたもので、夜間中学のハルモニたちとの出会いがきっかけになっている。

「NPO 法人京都コリアン生活センター エルファ」は、理事長の鄭禧淳氏が長年にわたる同胞の生活と権利を守る活動の中で、一世の問題に出会ったのがきっかけとなり、朝鮮語のできる在日コリアンホームヘルパーを養成する人材育成から始まった。このような動きは、愛知県名古屋市で、「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いこい」（2003年6月「NPO 法人コリアンネットあいち」認証）が開業されるなど、各地に広がりを見せている。それぞれに特色はあるが、共通しているのは、食べ物、そして、コリアンが集まり、語らえる場と、民族的な遊びや娯楽の提供だといえる。

これらとは異なる流れとして、在日朝鮮人の医療のために作られた病院が介護老人保健施設を設置する動きも一方である。大阪市生野区の介護老人保健施設「ハーモニー共和」も元々は在日朝鮮人の医療のために作られた共和病院（医療法人同友会）が開設したものである。

また、各地でのこのような取り組みをネットワーク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良い生活支援をしようと、2004年には、「在日コリアン高齢者生活支援ネットワーク・ハナ」（略称、ハナネットワーク）が結成された。

3. 多民族・多文化共生福祉への可能性

差別され、抑圧された状況の中で、被差別者、被抑圧者は内面に大きな傷を負っていたり、誇りやプライドを奪われたりといったことがしばしばある。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ための福祉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一世の方々を見てみると、サービスを利用する中で、自分自身の生き立ちを語り始め、その語りを通して今まで奪われてきた誇りを取り返していったりしている。さらに、その語りを聞いた若者が、一世から何かを学び取っ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が見られるということもある。また、文字を書く、学ぶというプロセスを通して、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内面が豊かになっ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を垣間見ることもある。差別から平等へ、抑圧から解放へと転換していくプロセスでもあり、民族的・文化的少数者の奪われた権利や誇りを取り返していく復権のプロセスでもある。

このように在日コリアン高齢者のための福祉サービスの実践は大きな成果を上げており、さらなるサービスの広がりや充実が望まれる。しかし、これらのサービスは財政上の問題もあり、在日コリアンの多数居住する所でないと実現するのが困難なために、全ての在日コリアン高齢者が利用できる状況ではないという課題も残されている。

在日コリアンの取り組みを既存の社会福祉制度や施設、サービスに生かすことによって、「日本人」のサービスを「すべての人」のサービス（国民福祉から多民族・多文化共生福祉）に転換でき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既存の国民福祉的福祉サービスを多民族・多文化共生福祉に転換していくことが望まれる。そのためにもさまざまな政策決定のプロセスや行政職員、民生委員への在日コリアンの登用と、日本人も含めた人材育成が急が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外国人が約 200 万人（2004 年末現在）、日本人の法律婚のうち 20.5 組に 1 組が外国人とのカップル（2003 年）、1 年に日本で生まれる子どものうち 34.5 人に 1 人は両親か一方の親が外国人（2002 年）。今後、ますます多様な人々が日本で共に暮らすこと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在日コリアンの試みは今後の日本の社会福祉・地域福祉の方向性を考える参考になるだろう。

プロフィール

金 永子 (キム・ヨンジャ)

四国学院大学 社会福祉学部 社会福祉学科 教授

学歴経歴

大阪市立大学生活科学部社会福祉学科卒業

同大学大学院生活科学研究科前期博士課程修了

四国学院大学文学部社会福祉学科専任講師

著書及び論文

「韓国の社会福祉」(編訳) 新幹社 2002

「在日外国人に関する生活保護のいくつかの問題について」部落解放 575号 2007. 1

「同胞高齢者と介護保険」同胞の人権と生活 Vol. 9, 2000. 1

「ハンセン病療養所における在日朝鮮人の闘い『互助会』(多磨全生園)の活動を中心に」 四国学園大学論集第 111・112号, 2004. 12